

## 독서불수

수필가 최규자

사전에서는 독서(讀書)를 <책을 읽음>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책(冊)이란 어떤 사상이나 사항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종이를 겹쳐서 꿰뚫은 물건의 총칭이다. 그리고 서(書)는 글로 쓴 곧 책, 문장, 기록, 편지 또 글자, 문자, 글씨, 서법(書法), 필적(筆跡), 장부(帳簿)를 뜻한다.

그래서 서책(書冊)은 서적(書籍)을 뜻하는데, 사람의 사상(思想)이나 감정을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꿰어 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적소(所)는 고려 인종이 학문을 배우며 토론하던 곳이다. 1129년에 수창궁(壽昌宮) 옆에 있는 시중소태보(邵台輔)의 집을 서적소라 하여 많은 책을 비치하고, 유신들로 하여금 《송조종의록(宋朝忠義錄》 등을 진강(進講)케 하였다.

후대의 왕이 이를 차차 제도화하여 충목왕은 이를 서연(書筵)이라 하였고, 후

에 공양왕은 경연(經筵)이라 개칭하였다. 조선조에서도 이 제도를 확립하여 한말까지 이어졌다.

또 고려시대의 관아로 서적점(店)이 있었다. 주로 활자주조와 서적의 간행을 맡아 보았다. 일찌기 목판인쇄가 발달되어 거창한 인쇄사업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1392년(공양왕 4)에는 서적원(院)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서적포(鋪)는 고려시대에 국자감에 두었던 일종의 출판부였는데, 1101년(숙종 6)에 설치되었다. 비서성에 소장되어 있던 모든 책판을 이곳에 옮겨 인쇄하여 널리 보급케 하여 사학의 번창으로 인하여 그 당시까지 위축된 관학을 진작하고자 하였다.

독서당(讀書堂)은 조선조 때 문관 중에서 특히 문학에 뛰어난 사람에게 사가(賜暇)하여 오로지 학업을 닦게 하든 전문적 서재(書齋)였다. 세종 8년에 사가 독서의

제도를 처음으로 두고, 성종 23년에 지금 구룡산(舊龍山)에 소재하고 있던 폐사(廢寺)를 수리하여 처음으로 독서당을 베풀었다. 정조 때에 규장각(奎章閣)의 기구를 넓히어 이를 폐하였는데, 호당(湖堂)이라고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구어로, 어티석은 사람도 늘 보고 들으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는 말로 <독서당 개가 맹자왈 한다>가 있다.

독서인(讀書人)은 독서를 좋아하거나 많이 하는 사람, 또는 일반적으로 독서를 하는 지식층(知識層)의 사람을 지칭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민간(民間)의 학자나 지식인을 일컫는 대명사격인 말이다.

일반 대중의 독서열을 양양하고 고취하기 위하여 설정한 본격적인 독서지도주간이 이른바 독서주간(讀書週間 : Book Week)이다. 191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창되어 미국의 도서관협회를 통하여 활발히 추진된 것인데, 한국에서는 1927년 이후 매년 10월 20일부터 28일에 걸쳐 시행된다.

독서지도(讀書指導)는 자신의 사상과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책을 소화하여 가는 힘을 어린이나 일반 대중에게 갖게하는 학교·가정·일반 사회의 전반적인 지도를 말한다.

그리고 『독서민구기(讀書敏求記)』는 중

국 청대(清代)의 시인 장서가(藏書家) 전증(錢曾:1629 ~?)이 자기의 장서에 적은 제발(題跋)을 모아서 편집한 해제(解題)로 전부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재빠를·민첩할 민(敏)자는 힘쓸(민), 힘써 함(민)자다. <중용>(中庸)에 「인도민정」(人道敏政)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구(敏求)는 ‘힘써 추구(追求)한다’는 정도의 뜻이다.

또한 신라 때의 관리등용법으로 독서삼품과(三品科)가 있었다. 원성왕 4년(788)에 태학감(太學監)에 설치한 과거와 비슷한 제도로, 상·중·하의 3품(三品)으로 성적을 심사하고 결정하여 관리를 등용하였다. 귀족의 자체에 한했는데, 이를 독서출신과라고도 칭한다.

동양권에서는 독서를 높이 평가한 사자숙어가 여러 개가 있다. 독서삼도(三到), 독서삼매(三昧), 독서삼여(三餘), 독서상우(尙友) 등이 그것이다.

독서삼도는 책을 읽어서 그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눈으로 잘 보는 안도(眼到)와 입으로 낭독하는 구도(口到)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심도(心到)의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입으로 다른 말을 아니하고, 눈으로는 딴 것을 보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고 숙독(熟讀)하면, 드디어는 그 진의(眞意)를 깨닫

게 된다는 뜻이다.

독서삼매는 잡념이 없이 오직 책을 읽는 데에만 골몰한 무아의 경지이다. 오직 책읽기에만 골몰하는 일이다. 범어 Samadh의 음역인 삼매(三昧)는 불교에서 하나의 대상(對象)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심불란(一心不亂)의 경지(境地)를 말하는데, 흔히 삼매경(三昧境)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 삼매당(三昧堂)이라하면 중이 늘 있어 범화삼매(法華三昧)와 염불삼매(念佛三昧)를 닦는 집으로, 삼매도장(道場)이라고도 한다. 또 불교에서 삼매야형(三昧耶形)은 제불보살(諸佛菩薩)이 일체 중생(一切衆生)을 구리이상(究理理想)의 증리(證理)에 들게 하려는 본서(本誓)를 말하고 그 형상(形相)에 나타내어 보이는 기장(器杖)·궁전(弓箭)·인계(印契)와 같은 것이다.

독서삼여(三餘)는 독서를 하기에 적당한 세 여가(餘暇)를 말한다. 즉 겨울·밤·비울 때이다.

독서상우는 책을 읽음으로써 옛날의 현인(賢人)들과 벗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상우(尙友)는 책을 읽고 고인(古人)

을 벗으로 삼는 일이다. 여기서 오히려 (尙)자는 '숭상하다, 높이 여김; 좋아하다, 즐김'의 뜻이다. 상문(尙文), 상지(尙志), 상서(尙書)와 같은 것이 그 쓰임이다.

또 글을 읽다가 기르는 양(羊)을 잃어버렸다는 말로, 다름이 다른 곳에 쏟됨을 이르는 독서망양(讀書亡羊)이 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의미로 독서지양(讀書之羊)이라 하여 목동이 글 읽다가 치는 양을 잃음, 의미가 변하여 곧 딴 생각만 하다가 낭패를 본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독서를 예찬한 말 중에서 독서불수(讀書不輸)가 그 으뜸이다. '독서는 지지 않는다'로 단사가 독서불패(不敗)다. 독서 으뜸통으로, 독서하면 패배(敗北)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지 않는 것이다. 독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를(수)자는 '지다, 패배함'의 뜻이다. 반대로 깔(영;瀛)자는 '이기다'의 뜻이다. 그래서 영수(瀛輸)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승부(勝負)와 같은 의미이다. 하여튼 독서는 만사여의(萬事如意)하며, 단사형통이다. ●